第一千六百三十七號 【一】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水曜日） 大正十四年三月四日

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日本普選의政治的意義

一

日本普選法案은 지난二日에 衆議院을無修正通過되엿다한다

日本이憲法을發布하야 立憲政體를樹立한後 議會를거듭하기五十回에至하엿는데 普選案이 衆議院에提出된지무릇六回이엿다 이제그沿革을一瞥하건대 第一回는第四十二議會에憲政會 國民黨 院內普選實行會等이各其提案하엿섯스나 맛참議會가解散된結果 審議未了로되고 그다음 第二回는四十三議會에 憲政會案과國民黨案이亦是否決되엿고 第三回는四十四議會에 第四回는四十五議會에 第五回는四十六議會에 或은各派의別案으로 或은協同案으로提出되엿섯스나 亦是臨時多數黨인政友會의專橫으로말미아마 否決에否決로一貫되고말엇다가 이번第六回에비로소通過를보게되엿다

二

우에말한바와가튼崎嶇한길을밟어이제야衆議院을通過하게되엿다 그러나아즉貴族院이란險悶한關門이압헤잇다 傳하는바에依하면 政友會가이번에 調協의破裂을覩하고 頑强히修正을主張하야 素志를貫徹한背後에는 研究會와의結托이잇는所以라하더니 通過後에 貴族院內의空氣는자못緊氣壓을示하는中이라한다 더욱히戶主華族의게選擧被選擧權을認定치아니하는点에至하야는 斷乎한決心으로써臨하리라한다

그리하야 多少의修正이잇슬던지는 豫測키難한바이나 普選이實施되고야말것은寸分의挾疑가無한바이라히여도過斷이아닐것이다

三

日本은從來에立憲國體임에不拘하고 德川幕府時代의遺物인貴族 閥族階級들이 政治上實權을掌握하고 萬般政務를料理하게되야 實狀民意를代表한다는衆議院은한갓特權階級의게屈縮諂하기에餘念이업시되엿섯다 그리하야衆議院은 元老 軍閥 貴族輩의走狗인感이不無하게되니 따러內閣의運命까지가그들特權階級의手中에서左右되는現象이엇다 그리하는동안에日本의紳士閥이資本主義의發達함을따러 資本의偉力을擁하고特權階級의勢力을不斷히蠶食하다가 最後의決勝戰에勝利를博하게된것이 곳加藤內閣出現의前兆이든護憲運動의成功이라할것이다

이와가티日本의紳士閥이完全히政權을掌握하게된것이 最近에關한터이나 世界大勢는紳士閥의獨裁를不許하는지라 그들은不得已普選을實施하야 時勢에迎合하지아니할수업섯다 그리고그들이普選案을 大膽히第一의政綱으로세우게된動機는 特權階級의勢力을 驅逐함에多數한民衆의後援이必要한所以이엇다

四

그러나 特權階級의勢力이거의沒落되야孤城落日의感이잇게되매 또한背後에新興하는 無產階級의勢力이可히恐한外敵이매 普選을 實施하는同時에 治安維持法案을 制定하야 모커럼어든政權을좀더오래維持하기에努力하는것은그들노보면當然한措處라할바이다 要컨대問題는普選法의實施도말미아머 勃興하는無產政黨의勢力을 治安維持法으로써 如何한程度까지나 箝制 壓迫하게될는지 그리고治安維持法을 最後의防禦線으로하여가지고 政權을어느時期까지나 維持하여가게될는지 이것이다 이것은歐洲先進國에서모조리 歷史的事實로써 吾人의게昭然히 證示하는바이아닌가 獨逸이일즉 普選을實施하야 勞働階級의勢力이 勃興하매 써스막의有名한 勞働運動鎭壓令으로써 無產階級의勢力을暴力으로威壓하든것은 가장適切한實例이라할것이다

五

이와가튼 錯綜된階級意識의發露인必然性은 暫間不問에付하고 오작 普選實施後의事態에 豫及한다면 如何한形態로든지 無產階級의政黨이出現된後에 비로소 日本의代議政治가 그本舞臺에드러가게될것은勿論이오 이에資本階級과無產階級과의鬪爭이 從來에散在的으로 部分的으로 行하든經濟的鬪爭에서 一步를進하야 政治舞臺에 그鬪爭의勢力을集中하게될것이다 그러면 普選實施後에第一回選擧戰에 그政戰이 도興味잇는現象이될것이오 第二 第三回를거듭하여가는동안에 그政戰이 具體化 深刻化하여갈것이 吾人의注目을不倦할바要諦인가한다 그리고日本民衆이 代議政治가얼마나미덥즉한政治組織인지 이것에對한體驗으로써 새信念을엇게될것도 今後에興味잇는推移라할것이다

獨大統領候補者 一般投票選擧는五月三日乎

（『쎌도』二日發） 獨逸大統領候補者로社會民主、中央의諸黨은『맑쓰』氏、人民、國粹의諸黨은『루터』氏、又獨逸의商工業家側은『쿠노』氏를推하는中인데一般投票選擧는아마五月三日에行할듯이라더라

減債基金設置案 佛國下院에서可決

（『쎌도』無電二日發） 佛國下院은『또스』案에關한支拂金으로써減債基金을設置하는案을可決하엿더라

佛、關稅案通過

（『쎌도』無電二日發） 佛國下院은左記食糧品의輸入關稅賦課案을通過하얏더라

砂糖 二〇『킬그람』에對하야 十法
코코아 同 六十一法
茶 同 六十二法
米 同 六法

大使任命拒絕 佛下院外交委員長

（『쎌드』無電二日發） 前土耳其特派使節이던『푸란구린、푸이욘』氏는下院外交委員長이라는理由로써『안고라』駐劄佛國大使에任命을拒絕하엿더라

軍事管理 報告審查

（『쎌도』無電二日發） 佛國政府는軍事管理委員會의報告를審查할터인데右報告는獨逸이重要한義務履行을怠한事를指摘하엿더라

크地秩序恢復

（『쎌드』無電二日發） 土耳其軍은『크루디스탄』의各地에서大略秩序를恢復하엿더라

波蘭의親露希望 原因은反獨逸思想때문에

（『쎌드』無電二日發） 波蘭의反露西亞思想은漸次反獨逸思想에壓迫되여露西亞와의親善關係를希望하고又佛國、羅馬尼亞와의緊密한同盟을希望함에至하엿더라

上海內外綿又罷業

（上海三日發） 內外綿第三工場의整紡織工六百名은本日午前八時에突然同盟罷工을斷行하고닥치는대로器具機械等을破壞하엿는데現今形勢으로는他에波及할念慮가無하다더라

貴革案 修正內容

（東京電） 樞密院의貴族院改革案修正內容은左와如하더라

一、公侯爵의制度는現在대로할것 但一旦辭任한者는再任함을不得함
二、官又는職에依하야勅任인者에게原案外에更히一名을加할것
三、學士院으로부터四名을互選할것
四、伯子男의總數百六十六名을百五十名으로할事
（以上三、四는原案可決）
五、貴族院令第七條의規定削除는原案可決
六、勅選을七年으로하는原案에對하야年限을附치안코別노老朽淘汰의方法을附하기로修正
七、現在의多額納稅者를廢하고百圓以上의直接國稅納稅者로부터二名式選出하는原案을三百圓以上으로修正하고尚히原案은各府縣一樣으로二名이라한것을人口百萬以上의府縣은二名百萬以下의縣은一名으로修正

尚히第二項의官職에依한勅選에는私立大學總長、大審院長、滿鐵社長、正金銀行頭取、勸業銀行總裁等中에서一名을加함

政府는修正承認

（東京電） 貴族院改革案에對한樞密院의修正條項을承認할與否를審議하기爲하야政府는三日午前九時半緊急臨時閣議를開會하고加藤首相以下各大臣이出席하고愼重審議한結果政府는此修正案을全部承認하기로決定하고十一時에散會하엿더라